

BTJ열방센터 ‘숨은 방문자’ 찾아낸다

도, 진단검사 행정명령…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자가격리 중·해제 전 검사·이웃간 감염사례 이어져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전남도가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남에서는 자가격리 중과 해제 전 검사, 이웃간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31일 상주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이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

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1차로 124명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추가 39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다.

1차 124명에 대한 검사결과 8명이 양성 판정 받았으며, 접촉자 검사에서 2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8명이 감염된 바 있다.

정부발표 결과 전국 BTJ열방센터 모임명단 중 약 70%가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명령과 함께 진단 검사를 촉구하는 긴급재난문자도 보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도내 지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 3명(나주, 광양, 순천)이 코로나19 진단검사서 확진 판정

을 받아 전남 613번-615번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615명(지역감염 553명, 해외유입 62명)이다.

나주 거주 전남 613번은 자가격리 중, 광양 거주 전남 614번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순천 거주 전남 615번은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전남 615번 열방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BTJ열방센터를 다녀왔거나 관련 있는 사람은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담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천797명으로, 이 가운데 1천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임후성기자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 KT광주지사 관계자가 관내 문흥동의 한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다. 북구가 향후 경로당 개소 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유튜브 등 비대면 콘텐츠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이번 와이파이 무료 보급은 오는 3월까지 관내 370곳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영근 기자

광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속 시행

수송·산업·생활 등 6개 분야 16개 부문 대책 추진

광주시는 1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월-3월)에 선제·예방적 조치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미세먼지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12-3월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계절 관리기간에 집중 8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6개 분야 16개 부문 생활밀착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6개 부문 주요과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안전시민실천본부 운영관련 푸른하늘리더단 운영 ▲미세먼지 집중도로 도로청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미세먼지 관리강화 등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는 국내 배출감축 정책 효과, 기상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 감소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가 좋은 상황이 12-3월은 기상 여건의 불리한 지속적인 영향으로 배출량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도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 검사 13만건 돌파

전국 10%…진단검사 적극 대응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들어 검체검사 13만건을 넘어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최초 발생 이후 지난 10일까지 13만4천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검사건수 134만2천건 중 1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인 인천 다음으로 많았다.

전남지역 총 확진자는 610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32.7명으로 나타나 전국 최

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난해 1월26일부터 총력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면서 ‘조기진단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대응원칙 아래, 무증상 감염을 확산시키는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검사에 나선 결과다.

이와 함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진단검사 인프라가 없는 동부권에 진단검사시스템을 긴급 구축했으며 임시 선별진료소 4곳 운영과 요양원·장애인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 다양한 검사를 벌여 공공 검사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특히 3차 대유행 상황이었던 지난해 12월 타 연구원의 한 달 검사량인 4천726건을 하루에 기록한 바 있으며 하루 평균 1천500여건에 달하는 검사를 24시간 쉴 새 없이 수행했다. 이로써 접수에서 통보까지 4시간 이내 신속하게 처리해 n차 감염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이 같은 발빠름 대처로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에 한 몫을 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감염병 실험실 검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재정기자

주거 취약계층 공공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광주시, 국토부 공모 선정…북구·광산구 전역 대상

광주시는 13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황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공모 선정돼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다.

주거 상황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해 상담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비 1억4

천만원을 투입해 북구, 광산구 전역을 시행 지역으로 실시한다.

시는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1대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해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주게 된다. 또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도우미도 지원한다.

이주할 주택은 LH와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는 현상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시행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운 시 주택정책과장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비주택과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권 보장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등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1면 ‘중앙공원1지구…’서 계속

일부 시민단체에선 사업자에 대한 특별혜를 제공한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주섭 광주경찰청 사무처장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광주시가 사업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준 데 대해 매우 실망

스럽고 특별혜를 제공하는 처사”라며 “중앙공원1지구 분양가가 가장 높은 만큼 분양원이 공개 등을 요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연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업자 측의 수익성이 충돌하며 협의의 과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마침내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로의 절차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은 분양원이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정에 준해 공개도 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대출,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